

#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및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enditure on the Private Education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and the Role Conflicts of Their Mothers

박주희(Juhee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and the role conflicts of the mothers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300 mothers of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and receiving private education in Seoul and its suburb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scale range of the median, whereas the degree of role conflicts was slightly lower than the scale range of the median. Seco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mothers as the control variables in order to identify their effect on the role conflicts of the mothers of th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age of the mother, the household monthly income, th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ole conflicts of the mothers. That is, the older the age of the mother, the lower the level of monthly income, the lower the level of th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the greater the degree of the role conflicts of the mother.

---

▲주제어(Key Words)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mothers with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사교육비 지출(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사교육 스트레스(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역할갈등(role conflicts)

### I. 서론

우리나라의 사교육 몰입현상은 주로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며 사교육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해 가정, 교육,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

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관점에서의 원인 분석과 효과적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S .Lee, 2005).

사교육비 지출 면에서도 2011년도 전체 사교육비가 20조 9천억 원의 규모로 전체 중고등학생의 71%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또한

---

\* Corresponding Author : Juhee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147, Mia-dong, Gangbuk-gu, Seoul 142-100, Korea, Tel: +82-2-920-7575, Email: pjh@sungshin.ac.kr

중고등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S. Ahan, 2009; J. Park & Y. Chang, 2013; J. Oh, G. Lee, & J. Kang, 2005).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의 입시경쟁과 중고등학생의 개인과의 열풍이 일어났던 때부터였으며 개인과의 사회적 병폐를 고민한 정부는 1974년도 고교 평준화 정책, 1980년대 과외법 금지정책 등 공교육 정상화와 과외과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사교육 금지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결정(2000·4·27)이 이루어진 2000년도부터는 사교육의 금지가 전면 해제되고 학원중심의 사교육 시장이 다시 성장하였다. 더욱이 사교육 시장은 역대정부들이 추진해온 수능·내신·논술시험 등의 혼란스러운 대학입시 평가체계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입시정보 제공과 진학 컨설팅의 주요역할을 담당하며 패권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 또한 매우 높아져서 모든 계층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교육경쟁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역할수행의 갈등을 겪는 교육현실에 처해 있다(L. Kang, 2007; S. Lee, 2006; M. Park, 2008).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열의 문제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성취동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교육 억제정책만으로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S. Ahan, 2009). 인적자본이론(G. S. Becker & N. Tomes, 1986)의 관점에서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비용의 교육투자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녀양육의 태도를 소수 자녀들에 대해 질적 양육을 기대하는 부모들의 이타적(altruistic)사랑이 반영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행동으로 가정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은 자녀의 미래 소득향상과 사회적 지위획득의 보증이 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교육욕구는 계속 높아져 간다.

사교육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건전육성에 대한 부모들의 새로운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녀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성공을 자녀양육의 주요 목표로 노력하는 어머니들이 지나친 교육경쟁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사교육 과열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교육은 개별 가정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비의 과다한 지출로 인해 많은 개별 가계가 부모들의 노후생활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M. Park(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계일수록 노후자금을 빌려 사교육비

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모들은 자녀학령기가 끝난 후에야 노후준비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K. Cho, 2011).

그러나 이와 같은 극심한 가계경제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사교육비의 지출을 좀처럼 경감시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I. Kim & J. Yeo, 1996; S. Lee, 2006; L. Kang, 2007) 이는 부모들의 사교육의 열의에 자녀들의 전인성장을 위한 학습기회 획득을 위한 본질적인 교육열의 이외의 동기가 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사교육의 주체 공자인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지출을 결정하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J. Seo, 2004).

한편 R. Abidin(1990)은 일상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심리적 긴장감을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 Abidin(1990)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의를 토대로 사교육 스트레스란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교육을 제공하는데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양육역할 수행의 긴장에 따른 심신의 불균형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흔히 가족전체의 생활로까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S. Kim 2008; S. Rhim, Y. Kim, & J. Park, 2005).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을 자녀양육의 주요책임으로 연결하여 이에 자녀들에게 질적·양적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학부모의 주요역할과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사교육과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역할수행의 경험에 관한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사교육 몰입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질적·양적사교육 제공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제한되며 그로 인해 역할수행의 심리적 긴장감인 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여건인 가계의 소득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역할갈등(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혔다.

역할갈등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긴장감으로 정의된다(L. A. Coser, 1974; W. J. Goode, 1960; L. L. Holmstrom, 1971). 어머니들이 자녀 사교육의 다양한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높을 때 가족들과의 정서적 상호작용 또한 잘 이루기가 어렵다고 한다(Y. Chyung, 2008; C. Jun & S. Park, 1998; H. Kim & H.

Doh, 2004; K. Kim & L. Kang, 1997). 어머니들의 역할 수행에 따른 긴장감은 나아가서 결혼생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부담은 부부간의 결혼적응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S. K. Housekencht & A. S. Macke, 1981; C. E. Ross & J. Mirowsky, 1988).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사교육 관련 경험과 심리적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사교육 관련 심리적 경험에 대한 탐구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교육 억제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역할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관련 경험 중 구체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긴장감인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사교육 억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 측면의 부정적 경험과 심각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탈 사교육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녀양육의 건전한 가치형성 돕고 나아가서 학부모들 간에도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의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개별

가계의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K. Cho., 2006; L. Kang, 2007; I. Kim & J. Yeo, 1996; S. Lee, 2006; M. Park, 2008).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별가계의 경제적 복지 및 지출규모와 관련해서 이루어졌으며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Y. Na & J. Yoon, 2011).

S. Lee(2006)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경제상의 어려움을 현재의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에 따른 소비생활의 스트레스인지 또는 장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여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고 소득층 및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저축을 감소시킴으로써 사교육 지출을 충당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자녀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대부분의 개별가계는 다른 부분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가계인 경우에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저축의 여력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부모들의 노후 생활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 Park(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계일수록 노후자금을 빌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학령기가 끝난 후에야 부모들은 비로소 노후준비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K. Cho, 2011). 그러나 이와 같은 극심한 가계경제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부모들은 자녀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I. Kim & J. Yeo, 1996; S. Lee, 2006; L. Kang, 2007).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 Na and J. Yoon(2011)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전인성장을 위한 학습기회 확보에 목표를 둔 본질적 교육열이 자녀의 출세수단의 획득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을 갖는 교육열 보다 높았으나 사교육비의 지출여부와 관련해서는 도구적 보상에 따른 교육열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자녀의 학력은 사회경제적 성공을 예측할 수 있어 자녀학력의 도구적 보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자녀, 학부모, 가계자원 등 가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을 들 수 있다.

가계수입 변인과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여력도 높아지며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도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M. Kim, 2002; S. Lee, 2002; M. Park & J. Yeo, 2000).

연령변인과 관련해서는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한 S. Hong and N. Sung(2008)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와 50대일 때 사교육비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을 연구한 S. Lee(2002)와 딸들에 대한 교육차별을 연구한 K. Nam(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은 연령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의 매우 중요한 교육욕구임을 강조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 변인과 관련해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학부모의 교육수준은 사교육비 지출과 정적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 Kim, 2004; S. Lee, 2006; M. Park & J. Yeo, 2000). 즉,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일수록 더욱 높은 도구적 교육열을 지니는 것으로 추측되며 학력은 또한 가계소득의 예측변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더욱 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사교육의 주제공자인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본다(J. Seo, 2004). 사교육 지출을 결정하는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역할갈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 2. 사교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교육 스트레스를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양육역할 수행의 긴장에 따른 심신의 불균형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겠다. Family Stress Society(1994)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에 따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는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죄책감, 우울감, 좌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 Rhim, Kim, & J. Park, 2005). 흔히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어머니는

자녀의 학업성취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자녀에게 실망과 비난을 자주 표현할 수 있고 이에 청소년기 자녀가 반항적으로 대응할 경우 결국 어머니와 자녀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가족전체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기 자녀의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히고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I. Chung & M. Park, 2013; D. J. Philowsky, D., P. Wickramarante, A. Talati, M. Tang, C. W. Hughes, C. J. J. Garber, E. Malloy, C. King, G. Cerda, A. B. Sood, J. E. Alpert, M. H., Trivedi, M. Fava, M., A. J. Rush, S. Wisniewski, & M. M. Weissman, 2008).

한편 사교육의 주 제공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사교육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겠다.

## 3. 자녀양육 스트레스

R. Abidin(1990)은 일상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심리적 긴장감을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한다(Y. Chyung, 2008; H. Kim & H. Doh, 2004; K. Kim & H. Kang, 1997). 의사소통은 가족의 기능화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족과정이다(Family Process).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능에 따라 가족의 행불이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담스러울수록 역할긴장감을 높게 경험하게 되고 결혼생활의 적응마저 어려워지는 것으로 밝혀졌다(S. K Housekencht & A. S. Macke, 1981; C. E. Ross & J. Mirovsky, 1988). 이와 같이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는 단지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복지뿐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등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R. Abidin, 1990; K. Crinic & M. Greenberg, 1990; S. Kim & J. Park, 2012)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따른 심리적 경험이 가족생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K. Crinic and M. Greenberg(1990)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자신의 역할긴장감과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건강성 및 가족기능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경험이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의 일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자녀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어렵고 가족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S. Jeon, 2007; M. Kim, 2005; B. Park, 2006; J. Park & Y. Chang, 2013; J. Seo, 2004). 가계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J. Park & Y. Chang, 2013)과 반면에 가계소득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Y. Bek, 2007; J. Yang & S. Kim, 2003)의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공급의 기회가 제한 될 수 있어 어머니들의 상대적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로 이해된다. 반면에 가계소득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투자비용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며 자녀 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감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자녀의 학업성과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거나 실망하게 될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가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비중도 높아지게 되며 사교육비의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M. Kim, 2002; S. Lee, 2002; M. Park & J. Yeo, 2000) 경제적 변인이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사실(M. Kim, 2005)과 반면에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사실(S. Jeon, 2007; B. Park, 2006; J. Park & Y. Chang, 2013)의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일상의 문제가 증폭될 수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연령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결과

(S. Jeon, 2007; M. Kim, 2005; J. Park & Y. Chang, 2013)와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B. Park, 200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제력과 연결될 수 있어서 양육투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투자가 높을 때 그들 자녀성취에 대한 기대로부터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낮을 때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저소득의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또한 가중될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정의하였다(S. Park, 2004; J. Seo, 2004).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역할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어머니의 사교육관련 경험에 있어서도 사교육비 지출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양육스트레스 또한 가중 될 수 있다.

#### 4. 역할갈등

역할갈등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긴장감으로 정의된다(L. A. Coser, 1974; W. J. Goode, 1960; L. L. Holmstrom, 1971).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게 될 경우 역할갈등 또한 높아 질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역할이론의 관점에서는 역할갈등은 역할수행자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일에 대한 심리적 동기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역할갈등의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두 가지 견해에서 논의 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연속모델(Continuum Model)의 논리가 주장하는 바는 누군가가 다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심리적 만족감은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속모델의 연구자들은 각기 상반된 견해의 두 가지 결과를 보고한다. 부정적인 결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증가할수록 자연히 긴장감도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L. A. Coser, 1974; W. J. Goode, 1960; L. L. Holmstrom, 1972). 반면에 다중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은 부담을 주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으로부터 긍정적인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S. R. Marks, 1977; S. D. Seiber, 1974).

한편 유형적 모델(Typology)을 제시한 최근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때 심리적 긴장과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J. M. Gerson, 1985; J. Park, 2005; J. Park & T. F. Liao, 2000).

이들 이론 중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특정 역할수행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지라도 그 역할에 대한 강한 심리적 동기와 만족이 내재해 있다면 역할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나라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과 관련해서 이해해 본다면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 사교육과 관련해서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강한 심리적 동기와 높은 교육소비 욕구가 내재하는 한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반드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어머니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살펴보면 소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소득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원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역할갈등을 경험할 된다는 선행연구들은 밝혔다(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

어머니 연령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문직 기혼 여성의 역할긴장도와 역할만족도를 연구한 J. Park and T. F. Liao(2000)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자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증가해가고 역할갈등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양자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부양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H. Lee & J. Larson, 2000; J. Park, 2005) 더욱 높은 수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역할긴장감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였다(J. Park, 2005; 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수는 양육스트레스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던 것과 같이(S. Park, 2004; J. Seo, 2004),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돌봄의 역할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어머니의 역할갈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갈등을 낮게 경험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Lim. H. & Lim, H. 1995).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일 수록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정해 나가는 능력을 지니며 다양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K. A. Crinic and M. T. Greenberg(1990)는 부모역할에 덜 만족하는 부모는 일상적으로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에 재학 중이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일에서 2013년 1월 30일까지 의도적 표본 추출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2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4.2%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부실기재하거나, 응답이 불분명한 자료 20부를 제외하고 3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5세이다. 구체적으로 40대가 7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0대 16.7%, 30대 10.01%의 순이었다. 월 소득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인 45.6%로 가장 많았으며 400-600만원 미만인 32.4%, 200만원 미만 13.3%, 600만원 이상 8.7%의 순이었다. 월 소득의 급간은 응답자의 응답분포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55.1%, 대졸이상이 44.9%였다.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가 29.1%, 판매, 서비스직 28.5%, 사무직 18.1%의 순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74.3%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8.7%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45.2%로 가장 높았고 2명이 43.3%의 순이었다. 종교의 경우 없다가 55.2%, 있다가 44.8%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급 형태를 보면 중학생 자녀만 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32.8%, 고등학생만 있는 경우 25.3%의 순이었다. 사교육 지출비용은 30-60만원 미만 50.2%, 61-90만원 미만 22.9%, 30만원 미만 16.8%, 91만원 이상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의 급간은 응답자의 응답분포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 2. 조사도구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어머니의 연령', '가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0 \*The number of cases may differ because of questions not answered.)

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Age of Mother Years old)	30-39	30	10	Family Structure	Couple+Children	217	74.3
	40-49	220	73.3		Grandparents+Couple+Children	56	18.7
	50 or more	50	16.7		Single Parent+Children	20	7.0
	Average: 45						
Monthly Income Level * (Million won)	less than 200	40	13.3	Number of Children	1 Person	134	45.2
	200-399	137	45.6		2 person	128	43.3
	400-600	97	32.4		3 Person	34	11.5
	more than 600	26	8.7	Religious Affiliation	Affiliated	132	44.8
			Non affiliated		162	55.2	
Educational Level Of Mother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162	55.1	Children's Level of School	Junior high school students	123	41.9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132	44.9		Senior high school students	74	25.3
					Junior/Senior high school students	96	32.8
Occupation of Mother	Profession	31	10.7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 (Million won)	300 or less	50	16.8
	Sales and Service	83	28.5		600 or less	149	50.2
	Clerical Job	53	18.1		900 or less	68	22.9
	Technical Labour Job	27	9.5	910 or over	30	10.1	
	Full-time Homemaker	85	29.1				
	Independent Business	12	4.1				

\*Rating scale classe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respons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월소득', 어머니의 학력수준, '월 사교육비 지출' '가족의 형태', '자녀수' '어머니의 직업', '종교유무', '자녀의 교급',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사교육 스트레스

사교육 스트레스 척도는 R. R.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SI/S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의 분류내용 중 부모의 고통과 부담에 대한 문항들을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타당도 확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 3인과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4점척도(4-Point Likert Type Scale)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감당하는 학업부담'에 대한 내용 4문항,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교육의 양과 질의 만족'에 대한 내용 2문항,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내용 2문항, '사교육으로 유발되는 경쟁 심리'에 대한 내용 2문항, 사교육으로 인한 자녀의 건전육성 저해'에 대한 내용 2문항, 건전한 교육환경에서의 자녀육성을 위한 도피유희의 고민'에 대한 내용 2문항, '사교육의 사회적 병폐로 부터의 회의'에 대한 내용 2문항 등 총 16문항의 자녀 사교육과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질문하였다. 총합점수의 범위는 16점으로부터 64점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사교육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3) 역할갈등

역할갈등의 척도는 미국 뉴욕시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기혼여자대학원생들과 전업주부들의 역할만족도와 역할갈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J. M. Gerson(1985)이 고안한 역할갈등척도 문항의 개념을 토대로 박주희(2011)가 재구성한 역할긴장도척도를 토대로 하여 4점 척도(4-Point Likert Type)의 총 9개문항의 역할갈등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다중부모역할 수행의 부담감, 부모역할 기대로부터의 부담감, 역할긴장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문항의 재구성은 3명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델파이 기법'방식으로 검토되었다. 다중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부담감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사적 시간의 결핍', '자녀양육으로 인한 능력의 부족',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복잡성에 대한 긴장감' 등의 3문항의 내용을 질문하였고 역할 기대의 부담감은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한 가족들의 지나친 기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움', '자녀를 위한 돌봄과 양육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등의 내용 3문항을 질문하였다. 역할 긴장감은 '일상생활의 긴장감', '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ressed Caused by Private Education and Conflict over Parental Roles

Variables	Category	Means	S.D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Total: M: 2.74 SD:.38	Problems of private education	3.19	.61
	Hiders healthful upbringing	2.78	.77
	Overseas study as a from of escapism	2.77	.70
	Financial burden of private education	2.75	.68
	Academic burden	2.59	.72
	Psychology of competition	2.58	.68
Conflict over parental roles Total: M: 2.30 SD:.46	Provision of private education in amount and quality	2.51	.59
	Multiple role performance	2.45	.46
	Burden of expectation	2.36	.54
	Sense of tension	2.08	.51

육이 없고 지쳐있음', '가족에 대한 원망과 긴장감' 등의 내용 3문항을 질문하였다. 총합점수의 범위는 9점으로부터 36점이다. 더욱 높은 점수는 더욱 높은 역할갈등을 나타낸다.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 문항간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의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 스트레스, 부모역할 갈등의 일반적 경향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 '사교육 스트레스', '부

모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총4점 만점에서 '사교육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74점(범위:1-4점)으로 중간값 2.5점 보다 높게 나타나 사교육 스트레스가 중간값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역할갈등'은 2.30점(범위:1-4점)으로 나타나 중간값 2.5점 보다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역할갈등'과 '사교육 스트레스' 모두를 약간 높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사교육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 영역은 '사교육 병폐의 회피'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3.91점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전성장의 저해'가 2.78점, 건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도피유학의 고민' 영역 스트레스가 2.7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의 다중역할 수행이 2.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대부담 2.36점, 긴장감 2.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의 차이는 어떠한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3>, 먼저 '사교육 스트레스'에는 '자녀수' ( $F=3.24, p<.05$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S. Park, 2004; J. Seo, 2004)에서도 '자녀수'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녀수'가

Table 3. The Differences in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and Role Conflict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Role Conflicts
		M(SD)	M(SD)
Age of Mother Years old	30-39	2.82(.41)	2.08(.66)
	40-49	2.77(.36)	2.32(.44)
	40 or more	2.75(.40)	2.29(.45)
F		.16	1.78
Monthly Income Level (Million Won)	Less than 200	2.86(.31)	2.53(.48) c
	200-399	2.74(.38)	2.36(.46) b
	400-600	2.77(.34)	2.22(.38) b
	More than 600	2.81(.49)	1.87(.49) a
F		.61	7.90***
Educational Level Of Mother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2.73(.38)	2.32(.44)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2.82(.36)	2.46(.48)
t		-1.66	.86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Million Won)	300 or less	2.90(.34)	2.50(.43) b
	600 or less	2.74(.34)	2.34(.47) b
	900 or less	2.80(.45)	2.11(.34) a
	910 or more	2.70(.39)	2.05(.42) a
F		1.63	6.51***
Family Structure	Couple + Children	2.78(.39)	2.28(.45)
	Grandparents + Couple + Children	2.68(.24)	2.23(.42)
	Single Parent + Children	2.91(.40)	2.58(.63)
F		1.85	2.87
Number of Children	1 Person	2.75(.39) a	2.39(.47) a
	2 Person	2.74(.36) a	2.23(.42) b
	3 person	2.95(.35) b	2.42(.63) c
F		3.24*	3.47*
Occupation of Mother	Profession	2.76(.53)	2.15(.84)
	Sales and Service	2.75(.41)	2.33(.49)
	Clerical Job	2.72(.28)	2.25(.30)
	Technical Labour Job	2.80(.26)	2.34(.39)
	Full-time Homemaker	2.82(.36)	2.33(.49)
	Independent Busines	2.62(.34)	2.19(.21)
F		.78	.51
Religious Affiliation	Affiliated	2.76(.37)	2.27(.49)
	Non affiliated	2.77(.38)	2.31(.46)
t		-.11	-.58
Children's Level of School	Junior high school students	2.70(.39)	2.31(.45)
	Senior high school students	2.85(.42)	2.33(.56)
	Junior/Senior high school students	2.79(.32)	2.27(.44)
F		2.51	.20

\* $p < .05$ , \*\*\* $p < .001$ , Duncan Test: a(=low)<b(=high)

많은 집단은 자녀들에게 질적, 양적 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역할갈등에서는 월소득(F=7.90, p<.001), 사교육비 지출(F=6.51, p<.001), 자녀수(F=3.4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 집단보다 그 이하 월소득 집단이 역할갈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원천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부모역할 갈등을 높게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

사교비 지출에서는 '91만원 이상'과 '61만원~90만원'인 집단보다는 '31만원~60만원'과 '30만원 이하' 집단이 역할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사교육비 지출 또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며 사교육비의 지출이 자유롭지 못할 때 어머니들의 역할갈등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 집단보다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녀의 수는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S. Park, 2004; J. Seo, 2004), 자녀의 수가 많을때 돌봄의 역할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어머니의 역할갈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

석된다.

3.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관련변인들과 부모 역할갈등과의 상관관계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이 선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18에서 .42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역할갈등과 독립변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사교육 스트레스(r=.3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역할갈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소득(r=-.31), 월 사교육비 지출(r=-.2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역할갈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사교육비지출, 사교육 스트레스가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Age of Mother	1										
2. Monthly Income Level	.07	1									
3. Educational Level of Mother	-.09	.18**	1								
4.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11	.42**	.16*	1							
5. Family Structure	-.11	.07	.02	-.05	1						
6. Number of Children	.25**	.05	-.07	-.01	-.07	1					
7. Religious Affiliation	.20*	-.01	.13	-.00	-.23**	.22**	1				
8. Occupation of Mother	.09	-.07	-.09	-.04	-.05	.11	-.12	1			
9. Children's Level of School	-.02	.01	.03	.08	-.09	.25**	.09	.05	1		
10.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04	-.01	.12	-.08	.04	.11	-.01	-.09	.05	1	
11. Role Conflicts	.07	-.31**	-.06	-.29**	-.09	-.05	-.04	.05	-.04	.38**	1

\*p < .05, \*\*p < .01

이에 앞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VIF는 1.06~1.34, 공차는 .76~.9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델 II에서는 모델 I에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살펴보았다.

제1단계에서는 역할갈등에 ‘어머니의 연령’(β=.16, p<.05), ‘월 소득’(β=-.31, p<.001)에서 영향력이 나타내었으며 Adjusted R<sup>2</sup>은 .133으로 이 변인들은 역할갈등 변량의 13%를 설명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 소득이 낮을수록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후, 모델 II에는 월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스트레스가 추가 투입되었다. 투입된 변수들 중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β=.14) ‘월소득’(β=-.24), ‘월사교육비 지출’(β=-.18), ‘사교육 스트레스’(β=.41)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usted R<sup>2</sup>은 0.34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21.0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역할갈등 변량의 34.0%를 설명하였다(F=9.36, p<.001).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갈등도를 높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를 지지하였다.

어머니의 소득이 낮을수록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 지지 하였다. 월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부모역할 갈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그 만큼 부모역할 수행의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갈등을 직접 연결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교육 스트레스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of Role Conflicts

Category	Role Conflicts			
	Model I		Model II	
	B	β	B	β
Age of Mother	.16	.16*	.13	.14*
Monthly Income Level	-.19	-.31***	-.15	-.24**
Educational Level of Mother	.02	.02	.00	.00
Number of children	-.10	-.10	-.13	-.11
Religious Affiliation	-.05	-.07	-.13	-.10
Family Structure	-.07	-.08	-.04	-.05
Occupation of Mother	-.09	-.09	-.06	-.07
Children's Level of School (Junior high school = 1. other = 0)	-.04	-.04	-.05	-.05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11	-.18**
Stress from Private Education			.55	.41***
Constant	2.66		1.48	
Adjusted R <sup>2</sup>	.133		.343	
F값	3.59**		9.36***	

\*p < .05, \*\*p < .01, \*\*\*p < .001  
 Religious Affiliation (affiliation =1, non affiliation= 0)  
 Family Structure (Couple + children = 1, others = 0)  
 Occupation of Mother (Full time housewives = 1, others = 0)  
 Children's Level of School (Junior high school = 1. other = 0)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겠다.

첫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들은 역할갈등에 비해서 사교육 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사교육 스트레스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별로 사교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들인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학업부담', '경쟁심리', '양적·질적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사교육의 본질적이고 규범적인 문제들로 주목되는 '사교육의 병폐'에 대한 인식, 자녀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대한 회의로부터 '자녀들의 도파적 유학'을 선택하는 것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교육의 병폐풍토에 회의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들은 사교육의 부당함을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들은 건전한 자녀의 성장을 돕는 올바른 부모역할로의 전환과 새로운 변화의 선택을 위한 동기가 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역할갈등의 하위 영역별로는 '기대부담', '긴장감' 등의 문제에서 보다는 어머니들은 '다중역할수행'으로부터 더욱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역할갈등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어머니들이 사교육 자체에 회의를 지니고 사교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갈등을 더욱 높게 지각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역할수행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관점(S. R. Marks, 1997; J. Park & T. F. Liao, 2000; S. D. Seiber, 1974)에서 어머니들은 사교육의 제공자로서 극심한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하더라도 사교육제공자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역할갈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역할갈등의 영역 중 '다중역할수행'의 영역에서 가장 높게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역할수행과 관련해서 심리적 긴장감 역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교육 스트레스', '역할갈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스트레스'에는 '자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녀수'가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사교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결과(S. Park, 2004; J. Seo, 2004)에서도 자녀수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투자비용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며 경제적 압박 또한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사교육제공 관련된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에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고 본다.

'역할갈등'에서는 '월소득', '사교육비 지출',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월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원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부모역할갈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집단 보다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여력이 없을 때 어머니들의 심리적 긴장감과 역할갈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수'가 많은 집단이 그 이하 집단보다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자녀의 수는 양육스트레스의 결정변인으로 밝혀졌다(S. Park, 2004; J. Seo, 2004),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돌봄의 역할요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어머니들은 역할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할갈등'을 종속변수로 하고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역할갈등'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역할갈등'과 변수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사교육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득', '사교육비 지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교육 스트레스'가 '역할갈등'에 부적상관에 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무척 중요한 양육의 역할로 연결하여 사교육 스트레스가 높을 때 심리적 긴장감과 갈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모델1은 통제변수인 '어머니의 연령', '월소득', '어머니

의 교육수준, '자녀수', '종교', '가족형태', '어머니의 직업', '자녀교급'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연령'과 '월소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역할갈등'에는 '어머니의 연령', '월 소득',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 스트레스'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사교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갈등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기간이 짧고 자녀의 연령이 낮고 자녀 양육의 기간 또한 짧아 그만큼 덜 지치고 자녀양육에 대한 동기 또한 더 높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젊은 어머니들일 수록 자녀양육을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지닐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역할갈등에도 그만큼 잘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교육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S. Ahan, 2009; J. Park & Y. Chang, 2013; J. Oh, G. Lee, & J. Kang, 2005 ) 연령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교육과 관련된 역할수행이 가중되고 역할갈등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월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 지출'이 적을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부모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소득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원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J. Park, 2010; J. Park & T. F. Liao, 2000).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가계소득에 따라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M. Park & J. Yeo, 2000; S. Kim, 2002; S. Lee, 2002). 가계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가계소득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머니들은 그만큼 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교육비 지출액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교육 지출 부담감에 미치는 관련성을 연구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J. Park, 2006; L. Kang, 2007)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계속 원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열의 문제는 사교육억제 정책의 개입만으로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사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어머니들이 사교육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할수록 부모역할갈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의 사교육과 관련한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어머니들의 사교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교육의 주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들의 정신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본질적으로 자녀의 전인성장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에 목표로 둔 자녀의 지적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특성을 보이지만 사교육에 관련해서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의 수단, 부모의 체면유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에 목표로 한 도구적 교육열의 특성을 나타나내고 있어 자녀에게 높은 질적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경쟁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Y. Na & J. Yoon, 2012). 따라서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 지출 부담의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교육 의존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사교육제공자로서의 역할수행의 긴장감과 갈등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본질적 교육 열의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성공을 위한 무한경쟁의 교육열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을 완화를 돕는 학문적,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사교육 스트레스의 영역들 중 사교육 병폐와 자녀들의 건전육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들이 사교육이 갖는 본질적인 부당함과 문제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교육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인적자본투자 관점에서 부모들의 자녀양육투자 동기와 양육효용최대화를 위한 선호행동을 고려할 때 사교육의 본질적 부당함의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개별가정의 학부모 스스로가 자녀양육의 인식과 가치가 올바르게 변화시킬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부모역할을 되찾도록 돕는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반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기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와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욕구 및 교육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탐구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교육과열 해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교육의 억제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 지지와 부정적 반응의 양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 억제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하는 부모들은 우리사회가 사교육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병폐를 우려하여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기능을 건전하게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부정적 반응을 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교육경쟁이 치열한 우리사회에서 부모가 사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자녀들의 학업성취와 성공을 위해 충분한 지지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사교육을 통제하기에 앞서 우리사회가 공동의 복리를 추구할 만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별가정의 사교육 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통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인 학부모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를 돕고 이러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의 자본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고 본다.

셋째, 사교육에 대한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은 필연적으로 공급되고 사교육 시장 또한 발달해 갈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도 고소득층에서는 자녀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되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초래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양극화 현상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교육투자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 투자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와 복지를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을 완화를 위해서 본질적인 교육열의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를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연구의 중요한 기여도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의 동기와 원인은 가족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에 그 제한점이 있다.

특히 어머니들의 사교육의 열의에 관련한 요소를 정확하게 탐구하기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스트레스 및 역할갈등 등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과관계의 결정변수에 대한 가설을 더욱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수준별(중/고등학생)로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사교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의 정확한 일반화를 위해서 후속연구를 통해 학급수준별 구분에 따른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향이 더욱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han, S. (2009). *A study on evaluation of private education easing poli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Bek, Y.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attitudes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47.
- Cho, K. (2011). *The factors affecting the middle-aged households: Focused on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statu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Chung, I., Park, M. (2013).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on adolescent depression: Verification of compensatory effect social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9, 241-167.
- Chyung, Y. (2008).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iation, 46(3), 73-85.
- Coser, L. A. (1974). *Greedy institutions: Parents of un-divided commi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Family Stress Society. (1994). *Stress on mothers*. Changjisa, Seoul Korea.
- Gerson, J. M. (1985). Women returning to school: The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s. *Sex Roles, 13*, 77-92.
- Goode, W. J. (1960). A theory of role stra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483-496.
- Holmstrom, L. L. (1972). *The two-career family*. Cambridge, MA: Schenkam.
- Hong, S., & Sung, N.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on for private tutoring.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0*(3), 183-212.
- Houseknecht, S. K., & Macke, A. S. (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661-662.
- Jeon, S. Y. (2007). *A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child care support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of Ulsan. Ulsan.
- Jun, C., Park. S. (1998).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95-105.
- Kang, L. (2007). Economic burden and its related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2), 315-335.
- Kim, H. (2004). Analyzing the structure of variables affecting on private tutoring expen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2*(1), 27-45.
- Kim, S. (2008). Korean mothers' factor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with focused on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2), 13-23.
- Kim, H., & Doh, H.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H., & Park.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child rear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8), 41-52.
- Kim, I., & Yeo. J. (1996).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of households & the related factors.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37-149.
- Kim, K., & Kang, H. (1997). Development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9), 145-150.
- Kim, M. (2002). *A study on the middle-aged people's functional preparation and stress for elderly lif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llym University, Gang-won.
- Kim, S.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Lee, S. (2002). Inequality of the househol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by income classe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9), 143-159.
- Lee, S. (2002).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and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7), 211-227.
- Lee, S. (2002). Household strategy for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urd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2), 115-132.
- Lee, S. (2005).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and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Kor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63-76.
- Lee, S. (2006). Household strategy for private educational burd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2), 115-132.
- Lim, H., & Lim. H. (1995). Casual relationships among wives' work-family conflict, socialization of housework and home management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3), 85-99.
- Marks, S. R. (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2), 921-936.
- Nam, K. (2007). Is there still discrimination against daughter's in Korea? *The Korean Economic Review, 54*(2), 119-141.
- Na, Y., & J. Yoon (2011). The effect of the mother's edu-

- cational aspiration and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6), 1199-1212.
- Oh, J., Lee, G., & Kang, J. (2009). The effect of recognition on private education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stress of child rear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1), 183-193.
- Park, B. (2006). *A study on the nurs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of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 Park, J. (2005).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rking mothers: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6), 117-131.
- Park, M. (2008). *Retirement planning and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mong the households schoo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J. (2010). The influence of family-friendly life environment factors o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married men/with children: Focused on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nurture and educ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accessibili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5), 117-131.
- Park, J., & Chang, Y. (2013). The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aternal working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5), 159-172.
- Park, J., and Liao, T. F. (2000).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Role change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Sex Roles*, 43(7/8), 571-589.
- Park, M., & Yeo, J. (2000).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186-206.
- Park,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Philowsky, D. J., Wickramarante, P., Talati, A., Tang, M., Hughes, C. W., Garber, J J. Malloy. E., King, C., Cerda, G., Sood, A. B., Alpert, J. E., Trivedi, M. H., Fava, M., Rush, A. J., Wisniewski, S., & Weisman, M. M. (2008).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1 year after the initiation of maternal treatment: Findings from STAR\*D-Child-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1136-1147.
- Rhim, S., Kim, Y., & Park, J. (2005). The study on the private education, stress on married women. *Journal of Human Ecology*, 10(2), 21-64.
- Ross, C. E., & Mirowsky, J. (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Seiber, S. 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2), 567-578.
- Seo, J. (2004). *The research on the working mother'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Focused o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 Statistics Korea. (2012).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private education in 2011. Retrieved from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Yang, J., & Kim, S. (2003). Analysis of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5), 221-232.

□ 접수 일 : 2014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14년 06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8월 07일